

韓國音樂 속의 動動

김세종*

<차 례>

- I. 내두리
- II. 動動의 文獻的 檢討
- III. 動動의 理論的 背景
 - 1. 動動의 뜻
 - 2. 動動의 由來와 傳來
 - 3. 動動의 高麗樂府 流入背景
- III. 動動의 鄉樂化
 - 1. 動動의 노래
 - 2. 動動의 춤
 - 3. 動動의 음악
- IV. 마무리

I. 내두리

『고려사(高麗史)』 제71권, 지제25권, 「속악(俗樂)」에는 무고(舞鼓)·동동(動動)·무애(舞導) 등 세 종류의 속악정재(俗樂呈才)가 실려 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동동인데, 지금까지 동동은 고려가요의 하나이며, 작가 연대 미상의 구전음악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동동관련 기록을 종합 정리한 다음, 이것을 중심으로 ① 동동의 뜻, ② 동동의 유래, ③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배경을 살펴보고, 나아가 ④ 동동의 노래, ⑤ 동동의 춤, ⑥ 동동의 반주음악 등이 어떻게 한국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II. 動動의 文獻的 檢討

동동은 『고려사』 제71권, 지제25권, 「속악」항을 비롯하여 10여종의 문헌기록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동동관련 문헌기록

문헌 출처		동동관련 내용
1.	『高麗史』 卷71, 「樂志」 21, 俗樂	<p>動動 舞隊樂官及妓 衣冠行次如前儀 妓二人先出 向北分左右立 斂手足蹈 而拜俛伏興 跪奉牙拍 唱動動詞起句(或無執拍) 諸妓從而和之 鄉樂奏 其曲兩妓跪 插牙拍於帶間 俟樂終一腔 起而立 樂終二腔 斂手舞蹈 樂終三腔抽拍 一進一退一面一背從樂節次 或左或右 或膝或臂 相拍舞蹈 俟樂徹兩妓如前 斂手足蹈 而拜俛伏興退. 動動之戲 其歌詞多有頌禱之詞 蓋效仙語而爲之 然詞僅不載.</p>
2.	『樂學軌範』 권5, 「時用鄉樂呈才圖說」	<p>牙拍 樂師東楹入 置牙拍於殿中左右(先左次右 拍纒向內 中宮宴 則年少妓爲之) 舞妓二人(擇年少妓)分左右而進 跪取牙拍 舉而還置(並用外手) 起立</p>

斂手(廣袖)足蹈 跪俛伏 樂奏動動慢機 兩妓小舉
 頭 唱起句 德으란 곰비에 받잡고 福으란 림비
 에 받잡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
 다 아으 動動다리 訖跪取牙拍 掛插於帶間(並用
 外手 插於外挾 斂手起立足蹈 諸妓唱詞 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아저 녹저 호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아으 動動다리 兩妓舞(俗稱 插踏) 奏樂動
 動中機 諸妓仍唱詞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훈 아으 滿春 달웠고지
 여 늬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 새여 므슴
 다 綠事니몬 넷나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
 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춤 藥은 즈믄 穉를
 長存호샷 藥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
 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다호라 도라 보
 실 니물 적곰 좃니노 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
 스 보로매 아으 百種 排 호야 두고 니물 훈디
 녀가져 願을 비습노 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
 스 보로 아으 嘉俳나리마룬 니물 피셔 녀곤오
 늘늬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 아
 으 藥이라 먹논 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
 만 호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브룻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훈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
 식음 널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스 분디남기로
 갓곤 아으 나술 盤잇 저다호라 나피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브르습노이다 아으 動動
 다리 擊拍 兩妓跪執牙拍 斂手起立(並執外手)
 從擊拍之聲 北向舞(三拍) 對舞(三拍) 又北向舞
 (一拍) 背략舞(三拍) 還北向而舞 隨每月詞變舞

		進退而舞 樂師因節次遲速 越一腔擊拍 兩妓斂手跪置牙拍於本處 斂手(廣袖)起立足蹈 跪俛伏興足蹈而退 樂止 樂師由東楹入 取牙拍而出(中宮宴 則年少妓爲之)
3.	『大東野乘』 권1 『慵齋叢話』 권1	(前略) 或相向 或相背 跳躍而舞 是謂動動也.
4.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己巳條	大提學南袞啓曰 前者命臣 改製樂章中 語涉淫詞釋教者 臣與掌樂院提調及解音律樂師反覆商確如牙拍呈才動動詞 語涉男女間淫詞 代以新都歌蓋以音節同也.
5.	『增補文獻備考』	動動 合浦萬戶柳濯 有感恩 倭侵長生浦 倭望而潰 軍士悅之 作此而美之 李睟光曰 頌禱之詞也.
6.	『星湖僊說』 卷四	動動者 今唱口作鼓聲 而爲舞節者也 動動猶瑟瑟也.
7.	『於于野談』 卷3	近來柳克新 作動動曲 以調侮時政 動動者鼓聲也 克新志士也 其亦有所述歟.
8.	『芝峰類說』 卷18, 技藝部, 音樂條	我東樂府有與民樂-(中略)-動動 · 鳳凰吟-(中略)- 動動者 亦頌禱之詞.
9.	『嘉梧藁畧』 「古樂府」三十一篇	動動 柳節制來合浦軍 望風南冠散如雲 憧憧人士爭相頌 喜動成歌動輒勤 倭寇 順天長生浦 合浦萬戶 柳濯赴援 倭望風潰 軍士悅之 作此 以美之.
10.	『海東竹枝』 「俗樂遊戲」	動動曲 小妓排琴而出 或相向 或相背 跳躍而舞 是謂動動 丹闕春深降彩鳳 萬樹桃花烘玉洞 太平聖主御四方 四方風動山不動.

11.	純祖 戊子(1828), 『進宴儀軌』	唱詞 百寶香身翊翊來 輕盈妙舞芙蓉臺 十二慢腔動動樂 曲終宛轉白聲催.
-----	------------------------	--

이와 같이 <표1>은 동동관련 문헌기록을 종합 정리한 것인데, 『고려사』 악지 속악조 처음 소개된 이래 순조 무자(1828) 『진연의궤』에 이르는 동안의 동동의 춤과 노래가 시대마다 달라진 일면과 동동에 담긴 이론적 배경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Ⅲ. 動動의 理論的 背景

1. 動動의 뜻

지금까지 고려 속악으로 알려진 ‘동동’은 동동사(動動詞) 후렴에 나오는 「아으 동동다리」에서 따온 것으로, 그 뜻은 이익(李翼)¹⁾의 『성호사설(星

1) 李翼(1681~1763)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驪州 자는 自新 호는 星湖 팔대조 繼孫이 성종 때에 벼슬이 병조판서·지중추부사에 이르러 이때부터 여주 이씨로써 가통이 섰다. 할아버지 志安은 사헌부지평을 지냈고, 아버지 夏鎭이다. 이익은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다음해 9월에 둘째 형 張禧燾을 두둔하는 소를 올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17, 18차례의 형신(刑訊) 끝에 47세를 일기로 옥사하였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침성리에 칩거하였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성호(星湖)라는 호수가 있어서 그의 호도 여기에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그의 田莊도 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타고난 성품은 氣神이 精朗하고 性貌는 峻潔하며, 눈에는 정기가 넘쳐흘러서 英彩가 사람을 쏘는 듯했다 한다. 문인 安鼎福은 이익의 인품에 대해 “剛毅篤實 이것은 선생의 뜻이요, 正大光明 이것은 선생의 덕이요, 선생의 학은 精深宏博하고, 그 기상은 化風景雲이요, 그襟懷는 秋月水壺이다.”라고 술회하였다. 그의 학문은 일문에 이어져서 준재가 많이 배출되어 아들 맹휴는 《禮論說經》·《春官志》·《接倭考》 등을 남기고, 손자 九煥은 祖業을 계승하였다. 저서로는 《성호사설》·《藿憂錄》·《성호선생문집》·《李先生禮說》·《四七新編》·《喪威前後錄》과 《사서삼경》

湖儀說』 권4에 動動者 今唱口作鼓聲 而爲舞節者也 動動猶鼕鼕也라는 문헌기록에 따라 동동의 뜻을 ‘북소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동동사 후렴에 나오는 ‘동동(動動)’을 북소리의 한자음 동동(鼕鼕)과 같다는 해석이다.²⁾

하지만 연구자는 여기에 의문을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동동(動動)과 동동(鼕鼕)은 전혀 다른 뜻을 지닌 한자라는 점이고, 둘째, 동동정제에서의 동동(動動)은 실제 북을 사용하지 않고 아박(牙拍)을 사용하고, 동동과 아박과 같은 정제무(呈才舞)에 있어서 북을 사용한 무고(舞鼓)가 따로 무고정제로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먼저 동(動)과 동(鼕)의 자의적 뜻을 살펴보자.

〈사료1〉 한나라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注에 의하면, 動作者 起也. 從力³⁾ 重聲(動 徒總切), 鼕 鼓聲.

〈사료2〉 양나라 顧野王撰의 『옥편(玉篇)』에 의하면, 動(徒孔切) 作也 易曰 六二之動 直以方也. (徒冬切) 聲或作鼕.

· 《근사록》· 《심경》 등이 있다.

2) 일반적으로, 북소리를 의성하는 말에는 작은 북을 칠 때에 나는 소리를 ‘동동’이라 하고, 큰 북을 칠 때에 나는 소리를 ‘동동’거리다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동동’이 작은 북소리를 의성한 용어라 할지라도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북 소리가 아닌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질장구, 물장구, 물북, 물허벅’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신물이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을 뿐더러 민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큰 옹기그릇 뚜껑에 물을 담아 박 바가지를 담그면 바가지가 물위로 떠오르고, 그 물과 바가지 사이에 생성된 공명을 통하여 ‘동동·동동’거리는 소리현상이 동동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위로 떠오른 것을 ‘동동 떴다’ 라고 하는데, 그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1) 물 위에 동동 떴다. 예문2) 식혜의 건더기를 동동 뜨게 하다. 예문3) 동동주 밥알이 동동 뜨다. 따라서 동동주를 다른 말로 부의주(浮蟻酒)라고 부른 실례에서 동동의 뜻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從은 從의 고자로, 쫓을중·세로중의 뜻이다.

〈사료3〉 『전운옥편(全韻玉篇)』 下에 의하면, 動靜之對作也 搖也 出也, 磬鼓聲.

한나라 허신의 『설문해자』 주에 동(動)은 동작을 일으키고, 수직으로 역동하는 중첩된 소리를 뜻하고, 양나라 고야왕찬 『옥편』에 동작을 곧고 바르게 한다 우리나라 『전운옥편』에도 움직이는 동작을 뜻하고 또한 북소리를 뜻하는 한자어 북소리동(磬)은 본래 이것이 동(磬)으로 쓰였음을 고야왕찬 『옥편』에서 살필 수 있으며, 이외에 북소리를 뜻하는 磬(북소리연)·磬(북소리등)·磬(북소리답)·磬(북소리당)·磬(북소리잡) 등이 있어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동(動動)과 동동(磬磬)을 같은 의미로 풀이하여 동동(動動)의 뜻을 막연히 북소리의 의성(擬聲, onomatopoeia)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動)과 북소리를 뜻하는 동(磬)이 서로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동동사 후렴 「아으 동동다리」에서 비롯된 동동(動動)이 북소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입장이다. 그렇다면 동동은 무슨 뜻이겠는가? 위의 〈사료1~3〉에서 살펴보았듯이, 동(動)은 동작을 뜻한다. 마치 몸을 일으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신체동작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동사 후렴에 나오는 「아으 동동다리」에서 그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 곧 후렴 ‘동동다리’가 다리동작을 뜻하는 의성이란 점에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역부족인 상황이거나, 반면에 즐거운 일을 당하면 발을 ‘동동 거리다’고 하는 것처럼 동동 역시 ‘발을 잇 따라 구르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이러한 점은 『중용(中庸)』의 ‘동호사체(動乎四體)’⁴⁾란 말로 부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현(鄭玄)은 사체란 거북의 사족(四足)을 말하며, 봄에는 뒤의 왼쪽 발로 점을 치고, 여름에는 앞의 왼쪽 발로 점을 치고, 가을에는 앞의 오른쪽 발

4) 『中庸』: 至誠之道 可以前知 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孽 見乎蓍龜 動乎四體 禍福將至 善 必先知之 不善 必先知之 故至誠如神. 또한 『중용』에 이르기를 “明則動하고 動則變한다” 했으니 鄭玄은 動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고 했다.

로 점을 치고, 겨울에는 뒤의 오른쪽 발로 점을 친다고 하였고, 주자(朱子)는 사체란 동작위의(動作威儀)에 나타나는 것을 말 한다했다. 이것은 판소리의 3가지 구성요소인 '창·아니리·발림' 중 흔히 창자의 몸짓을 일컬어 '발림·너름새·사체'라고 하는 말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동동사의 후렴에 나오는 「아으 동동다리」의 동동(動動)은 북소리를 의성 한 것이 아닌, 다리동작을 뜻하는 것으로, 고대 제의에 사용된 거북의 다리의 동작을 보고 길흉을 점친 거북 다리점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動動의 由來와 傳來

문헌기록에 나타난 동동의 유래는 우리나라를 항해하며 무역을 핑계 삼아 약탈을 일삼던 일본 사람들이 순천 장생포에 침입했는데, 함포만호 유탕(柳濯)⁵⁾이 구원병을 이끌고 나타나자 멀리서 바라본 왜구들이 유탕의 풍채와 사기충천한 군사들을 보고 놀라 뿔뿔이 도망가자 우리군사들이 기뻐하며 동동을 노래 불렀다는 데에서 연원하고 있다.⁶⁾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동이 북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

5) 柳濯(1311~1371)은 고려 공민왕 때의 상신, 자는 春卿 본관은 高興 淸臣의 손자이다. 담략 있고 무예에 능했으며 일찍이 음관으로 조정에 나가 원나라에 들어가 宿衛하고 돌아왔다. 監門大護軍이 되고 수년 동안 누진하여 고흥군에 봉군되고 원나라로부터 合浦萬戶로 임명되었으며 충정왕 때 찬성사를 지냈다. 공민왕 초에는 전라도 만호가 되어 사졸들과 甘苦를 같이하며 군기를 엄정히 하여 왜구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였으며 장생포곡을 지어 악부에 올렸다. 다시 찬성사를 거쳐 左丞相이 되고 고흥부원군에 봉군되었다. 원나라의 紅巾賊을 정벌할 때 정병에 선발되어 수 천병을 이끌고 원나라 대사 脫脫의 막하로 들어가 高郵의 홍건적 두목 張土誠을 정벌하고 돌아와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를 거쳐 경상도순문사 겸 병마사 좌승상이 되어 홍건적의 난 1등 공신이 되었다. 노국공주의 영전신축을 반대하다가 하옥 후 이어 석방되고, 신돈이 주살되자 그와 관련되었다는 무고로 교수형을 당했다.

6) 『嘉梧藁畧』 「古樂府」 三十一篇 : 倭寇 順天長生浦 合浦萬戶 柳濯 赴援 倭望風潰 軍士悅之 作此 以美之.

치 ‘발을 잇따라 구르는 다리동작’을 나타낸 뜻이라면, 동동의 유래는 『수서(隋書)』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마한조(馬韓條)에 전하는 가무백희(歌舞百戲)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한은 ‘항상 5월의 씨뿌리기를 끝냈을 때와 10월의 추수가 끝났을 때 귀신을 섬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져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기를 밤낮을 쉬지 않고 하였으며, 그 노는 모습은 수십 인이 앞사람의 뒤를 서로 따르며 땅을 밟으면서 구부렸다 젖혔다 한다. 그 손과 발의 동작이 서로 맞는데, 그 절주는 마치 중국 고대의 탁무(鐸舞)⁷⁾와 비슷한 점이 있다’⁸⁾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동동을 미루어 본다면, 동동은 왜구를 물리치고 기뻐하며 군사들이 연행한 노래와 춤 그리고 음악과 놀이가 어우러진 동동지희(動動之戲)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리동작을 의성(擬聲)한 동동지희(動動之戲) 역시 그 역사적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동동의 역사적 유래를 소급해 멀리 마한시대부터 남방 해양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제의 형식을 빌린 ‘다리놀이’에 따른 가무백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동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동동의 역사적 변천과정

① 동동의 유래와 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歌〕 · 춤〔舞〕 · 음악〔樂〕 · 놀이〔百戲〕
--------------	--



7) 『隋書』 15, 志10 : 牛弘 請存鞞鐸巾拂等 四舞與新伎 並陳因稱四舞 按漢魏以來 並施於宴饗-(中略)-鐸舞-(中略)-振鐸鳴金-(中略)-鞞鐸巾拂 古之遺風.

8) 『三國志』 『後漢書』 『東夷傳·馬韓條』 : 馬韓-(中略)-常以五月下種 祭鬼神 群聚歌舞飲酒 晝夜無休 其舞 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p>②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탁의 왜구 격퇴 칭송 · 문학면에서 본 동동 - 動動詞 (瓊嶠之詞 · 仙語之詞 · 語涉淫詞) · 음악면에서 본 동동노래 - 月令歌 · 달거리 <li style="padding-left: 20px;">동동춤 - 動動呈才 · 牙拍呈才 <li style="padding-left: 20px;">동동음악 - 慢機 · 中機 · 急機 <li style="padding-left: 40px;">界面調 <li style="padding-left: 20px;">동동놀이 - 탈락
----------------------------	---



<p>③ 『고려사』 「악지」 속악정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動動
------------------------------	--



<p>④ 『악학궤범』 시용향악정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牙拍
----------------------------	--



<p>⑤ 순조 무자(1828) 『진작의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牙拍舞 · 動動慢機가 아닌 井邑慢機를 연주 · 動動詞가 빠지고 대신 7言 絶句 漢詩를 노래
---------------------------------	--



<p>⑥ 오늘날 단절</p>

3. 動動의 高麗樂府 流入背景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배경에는 합포만호를 지낸 유탁이 ① 순천 장생포에 등장한 왜구를 물리친 공로를 칭송하여 군사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점과 ② 유탁이 사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군사를 사랑하였으나, 군기를 엄정히 함으로써 왜구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였다는 사실이 후일 고려악부에 유입되어 속악정재로 자리 잡으면서 동동놀이의 원형인 다리놀이는 탈락하고, 노랫말은 동동사로, 춤은 아박(牙拍)을 들고 춤추는 속악정재로, 음악은 동동만기·중기·급기를 계면조로 연주하는 정재를 완비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Ⅲ. 動動의 鄉樂化

1. 動動의 노래

동동의 노랫말은 『고려사』에는 실리지 않고, 『악학궤범』 권5의 「시용향악정재도설」에 실려 있는데, 『고려사』에는 노랫말이 송도지사가 많고, 대체로 장생불사를 본받은 말이 많으나, 가사가 비리하여 싫지 않는다⁹⁾고만 부기하고 있다. 나아가 『악학궤범』에 소개된 동동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德으란 곱비에 받좁고
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9) 『高麗史』 卷71, 「樂志」 21, 俗樂：其歌詞多有頌禱之詞 蓋效仙語而爲之 然詞俚不載.

正月八 나릿브른
아으 아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온디나곤
아으 動動다리

二月八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八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훈
아으 滿春 달윳고지여
늑미 브롤 즈술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綠事니뎀 넷나 넷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츨 藥은
즈믄 穉를 長存흐살 藥이라 받즙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八 보로매
아으 별해 브룬 빗다호라
도라 보실 니물 적곰 좃니노 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八 보로매
아으 百種 排 ㅎ야 두고

니를 혼디 너가져 願을 비습노 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八 보로
아으 嘉俳나리마론
니를 피셔 너곤 오늘날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 흥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벉룻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흥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八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음 널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八 분디남기로 갓곤
아으 나술 盤잇 저다호라
나피 알피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브르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이와 같이 동동사는 기구(起句)를 포함하여 13연으로 되어 있으며, 기구를 뺀 12연은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를 노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동사는 정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장씩 노랫말을 구성하여 절기에 따른 풍속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입을 여윈 그리움을 애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달거리 형식의 노랫말은 한국음악 성악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달거리 형식의 성악곡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동동사 형식의 노랫말

달거리		월령체	
경기민요	찾은 방아타령	高尙顔 ¹⁰⁾	농가월령
"	풍년가	兪孝通 ¹¹⁾	향약채취월령
	품바타령(각설이타령)	朴世堂 ¹²⁾	전가월령
서도잡가	달거리	丁學游 ¹³⁾	농가월령가
단가	사시풍경가	李基遠 ¹⁴⁾	농가월령
"	사철가	金克己 ¹⁵⁾	전가사시
	관등가	成倪 ¹⁶⁾	전가사십이수
규방가사	사친가	李裕元 ¹⁷⁾	사시가
구전민요	청상요, 과부가	『呂氏春秋』	12월령
"	달풀이	『禮記』	월령
		『詩經』	빈풍

10) 高尙眼(1553~1623).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開城 자는 思勿 호는 泰村 할아버지는 충순위증판결사 克恭이며, 아버지는 중 한성우윤 天佑이다. 어머니는 信川康氏 습독 希彦의 딸이다. 1573년(선조 6)에 진사가 되고, 1576년에 문과에 올라 함창현감·풍기 군수 등을 지냈다. 40세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침입하자, 향리인 상주 함창에서 의병 대장으로 추대되어 큰 공을 세웠다. 49세 이후 지례현감·함양군수를 지냈고, 李德馨·李舜臣 등과의 書事記錄도 남긴 바 있다. 그 뒤 울산판관을 지낸 후, 벼슬을 그만두고 전원생활을 하였다. 문집으로 1898년에 간행한 泰村集 목판본 6권 3책이 전한다. 그 가운데 행장(行狀)에 보면 농사에 밝고 문장이 능하며, 농군을 가르치고 농사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학계에서는 현전하는 <農家月令歌>를 그의 소작이라고도 본다.

11) 兪孝通(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의학자 본관은 杞溪 자는 行源 1408년(태종 8)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427년(세종 9)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대사성을 거쳐 집현전직제학이 되었는데, 문장에 능하고 의학에 정통하였다. 1431년 典醫監正 盧重禮 등과 같이 <鄉藥採取月令>과 <鄉藥集成方>을 편찬하였다.

12) 朴世堂(1629~1703)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潘南 자는 季肯 호는 潛馬·西溪樵馬이다. 할아버지는 좌참찬 東善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 炬이며, 어머니는 楊州尹氏로 관찰사 安國의 딸이다. 4살 때 아버지를 여이고 고모부인 鄭思武에게 수학하였다. 1660년(현종 1)에 증광문과에 장원해 성균관전직에 제수되었고, 그 뒤 예조좌랑·병조좌랑·정언·병조정랑·지평·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함경북도병마평사 등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서계선생집 西溪先生集>과 <대학>·<중용>·<논어>·<상

서》·《시경》 등의 해설서인 《사변록》, 그리고 도가에 대한 연구서인 《新註道德經》 1책과 《南華經註解刪補》 6책이 전한다. 편저로는 농서(農書)인 《색경 穡經》이 전한다.

- 13) 丁學游(1786~185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羅州 호는 耘道로 丁若鏞의 둘째아들이다. 일생을 문인으로 마쳤다. 1816년(순조 16) 한 해 동안 힘써야 할 농사일과 철마다 알아두어야 할 풍속 및 예의법절 등을 운문체로 기록한 <농가월령가>를 지었다. 모두 518구의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農時를 강조하고 농구관리와 거름의 중요성, 그리고 작물과목·양잠·양축·양봉·산채·약초·김장·누룩·방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사내용과 세배·널뛰기·웃놀이·달맞이·더위팔기·성묘·川獵·薦新 등의 민속적인 행사 등이 광범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농가월령가>는 농부들이 농업기술 내용을 철마다 음률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농업기술 보급상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민속학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말 노래로써 농업기술의 보급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14) 李基遠(1809~1890)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全州 호는 螺叟로 李勉達의 장남이다. 高宗 10년(1873)에 進士에 入格하고 享年 82세로 졸하였다. 《농가월령》은 1973년 대전시내 고서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말미에 李螺叟集이라고 쓰여 있으며, 학계에서는 李基遠의 중년기 저술로 이해되고 있다. 《농가월령》은 12월령체로 지어진 735句의 長篇歌辭인데 農村生活의 風貌를 月別로 노래하되 丁學游의 《농가월령가》와는 달리 농민들의 喜怒와 生活苦를 체험한 그대로 眞率하게 表白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 15) 金克己(생몰년 미상) 고려 명종 때의 학자. 본관은 廣州 호는 老峰이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신들이 정권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던 명종 때에 龍灣(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의 佐將을 거쳐 翰林이 되었으며,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기도 하였다. 뛰어난 문장가로서 특히 농민반란이 계속 일어나던 시대에 꺾박받는 농민들의 모습을 친근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농촌문제를 자신의 일로 고민했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
- 16) 成侃(1439~1504) 조선 초기의 학자. 본관은 昌寧 자는 磐叔 호는 弁齋·浮休子·虛白堂·菊塢이며, 시호는 文載이다. 아버지는 知中樞府事 念祖이다. 성현은 1462년(세조 8) 23세로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466년 27세로 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로 등용되었다. 홍문관정자를 역임하고 待敎 등을 거쳐 司錄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29세로 經筵官이 되었다. 그리고 예문관수찬·승문원교검을 겸임하였다. 그는 형 任을 따라 北京에 갔다. 성현은 1474년(성종 5)에 지평을 거쳐서 成均直講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韓明澮를 따라 재차 북경에 다녀왔다. 1476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제학·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僉知中樞府事로 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성현은 음률에 정통하여 掌樂院提調를 겸하였기 때문에 외직으로 나감으로써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한달만에 예조판서로 제수되었다. 이 해에 柳子光 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樂學軌範》을 편찬하였다. 성현은 성종의 명으로 고려가사에서 <雙花店>·<履霜曲>·<北殿> 등의 표현이 노골적인 淫辭로 되었다고 하여 고

2. 動動의 춤

동동은 고려시대 악부에 유입되어 속악정재로 자리 잡아, 조선시대 시용향악정재(時用鄉樂呈才)로 이어지면서 첫째, 명칭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고려시대에는 속악에 따른 동동정재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시용향악정재에 따른 아박정재로 명칭이 바뀐다. 이와 같이 명칭이 바뀐 시점은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6, 31년(1449) 10월까지만 해도 동동정재란 명칭으로 소개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이 이후에 ‘아박’¹⁸⁾으로 바뀌어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정재에 소개된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고려시대 속악으로 소개된 동동정재와 조선시대 시용향악정재로 소개된 아박정재는 춤 구성에 있어 다를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무자(1828) 『진찬의궤(進饌儀軌)』에 소개된 아박무와 『악학궤범』에 소개된 아박정재와도 전혀 다른 춤 구성을 하고 있다. 『진찬의궤』 여기에서는 일단 동동사가 빠지고, 대신 7언 절구의 시를 노랫말로 부르고 있으며, 동동곡이 아닌 정음을 연주하는 등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소개된 아박과는 많은 변화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 세 종류의 정재무를 비교하면 <표4>와 같다.

쳐 쓰는 등 음악에 밝았다.

- 17) 李裕元(1814~1888)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慶州 자는 京春 호는 橘山·목농이다. 이조판서 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정시문과에 급제, 예문관검열·규장각 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의주부윤·함경도관찰사를 지냈다. 고종 초에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나 흥선대원군과 반목하였으며, 1879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으로부터 영국·프랑스·독일·미국과 통상수호하여 일본을 견제, 러시아를 방지하라는 요지의 서한을 받았다. 1880년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으나 1881년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유생 申耜의 강력한 상소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882년 전권대신으로서 일본변리공사 花房義質와 제물포조약에 조인하였다. 학문에도 능하여 <林下筆記>·<嘉梧藥略>·<橘山文庫>를 남겼으며, 예서에 능하였다.
- 18) 아박은 타악기의 하나이다. 모양은 박과 같으나 크기는 절반 정도이고 상아, 고래뼈, 쇠뼈, 사슴뿔 등으로 만드는데, 모두 6편이고 사슴가죽으로 꿰어 오색의 매듭을 드리운다. 음악의 연주에는 쓰이지 않고 다만 향악정재의 하나인 아박무에서 무기가 들고 추는 무구의 하나로 쓰인다.

〈표4〉 동동정제와 아박정제 그리고 아박무의 비교표

『고려사』 동동	『악학궤범』 아박	순조 무자(1828) 『진작의궤』 아박무
① 무대 악관 및 여기의 의관과 행차는 앞의 의례와 같다.	① 악사가 동쪽으로부터 들어가 전중 좌우에 아박을 놓는다.	① 음악이 정음만기를 연주하면 악사가 아박을 가지고 드리 가서 전중 좌우에 놓고서 나온다.
② 여기 두 사람이 먼저 나아가 북향하여 좌우로 갈라서서 염수(斂手)·족도(足踏)하며 절하고 몸을 구부렸다가 일어나 다시 꿇어 앉아 아박(牙拍)을 받들고 동동사의 첫 기구를 부른다. 다른 여기들이 따라서 화창하고 향악은 동동을 연주한다.	② 여기 두 사람이 좌우로 갈라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아박을 집어 들었다 도로 놓는다. 일어서서 손을 염수 족도하고 꿇어 앉아 구부러 엎드린다. 음악이 동동 만기를 연주하면 두 여기가 조금 머리를 들고 다음과 같은 기구를 부른다. 德으란 곱비에 받잡고-(중략)-.	② 박을 치면 여기 4사람이 염수하고 족도하며 아박 앞으로 나간다. 박을 치면 모두 족도하며 꿇어 엎드려 아박을 잡고 일어서면 음악이 그치고 다음과 같은 창사를 부른다.
③ 여기는 꿇어앉아 아박을 떠 허리띠 사이에 꽂고 음악 일강이 끝나기를 기다려 일어나 선다.	③ 끝나면 꿇어앉아 아박을 집어 허리띠에 꽂고 염수 족도하면 여러 여기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正月入 나릿므른-(중략)-.	
④ 음악 이강이 끝나면 염수하고 족도한다.	④ 두 여기는 춤춘다. 음악이 동동 중기를 연주하면 여러 여기는 다음과	③ 끝나고, 박을 치면 정음 만기를 연주한다.

	같은 노래를 거듭 부른다. 二月八 보로매-(중략)-.	
⑤ 음악 삼강이 끝나면 아박을 뽑아가지고 한 번 앞으로 나가다가 한번 물러나고 한번 마주보고 한번 등을 보이며 음악이 절차에 따라서 혹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혹은 무릎에 혹은 팔에 아박을 치며 무도한다.	⑤ 박을 치면 두 여기는 꿇어앉아 아박을 잡고 염수 족도하며 박을 치는 소리에 따라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마주보고 춤추고 또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등을 보이며 춤추고 다시 북쪽을 향하여 춤추는데 매월사에 따라 춤을 바꾸어 나갔다. 물러났다가 하면서 춘다. 악사의 절차로 인하여 늦고 빨라진다.	④ 박을 치면 여기 4명이 북쪽을 향하여 족도하며 박 소리에 따라 아박을 세 번 친다. 박을 치면 등을 보이며, 세박, 북쪽을 행하여 한박, 한팔은 들고 한팔은 내리는데, 왼손은 내리고 오른손은 들고서 한박을 친다. 한팔은 드는데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며 한 박, 두 손으로 박을 잡고 왼쪽 다리를 들며 한 박을 친다. 여기 4명이 양수무로 열을 짓는다.
⑥ 음악이 끝나기를 기다려 여기는 앞서와 같이 염수 족도하고서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⑥ 1강에 박을 치면 두여기가 손을 염수 족도하며 꿇어 앉아 본래 있던 자리에 아박을 놓고 염수 족도하고 다시 꿇어 앉아 구부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족도하면 물러난다. 음악이 그치면 악사가 동쪽으로부터 들어가 아박을 들고 나온다.	⑤ 박을 치면 염수하고 족도하며 꿇어앉아 아박을 본래의 자리에 놓는다. 박을 치면 일어서서 염수하고 족도하며 물러나고, 악사는 들어가서 아박을 들고 나오면 음악이 그친다.

한편, 동동을 소재로 한 동동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는 세편의 문헌기록에서 살펴지는데, 옛 선인들이 시를 통하여 그려낸 동동정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4〉『가오고략(嘉梧藁畧)』 「고악부」 31편 중 동동.

柳節制來合浦軍(유절제래합포군)	유탕이 이끈 합포군이 오니
望風南冠散如雲(망풍남관산어운)	멀리바라 본 왜구들 구름같이 흩어지고
憧憧人士爭相頌(동동인사쟁상송)	못 사람들 앞 다투어 송축하네
喜動成歌動輒動(희동성가동첩동)	기쁘게 동동 노래 다 부르자 동동 갑자기 빨라지는구나.

〈사료5〉『해동죽지(海東竹枝)』 중 동동.

丹闕春深降彩鳳(단궐춘심강채봉)	봄 깊은 궁궐 아름다운 봉황이 날아들고
萬樹桃花烘玉洞(만수도화홍옥동)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 꽃 옥동을 밝히고
太平聖主御四方(태평성주어사방)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 사방에 노래하니
四方風動山不動(사방풍동산불동)	사방에 감화 되어 태산도 움직이지 않네

〈사료6〉 순조 무자(1828), 『진연의궤(進宴儀軌)』 아박.

百寶香身嬋嬋來(백보향신노노래)	백가지 보물과 향기로운 몸 이어져 오니
輕盈妙舞芙蓉臺(경영묘무부용대)	신묘한 춤사위 부용대에 가득하고
十二慢腔動動樂(십이만강동동악)	12월 동동사를 느리고 빠르게 연주하며
曲終宛轉拍聲催(곡종완전박성취)	악곡 마치자 아박 맞춰 춤사위 재촉하네

3. 動動의 음악

동동음악은 『대악후보(大樂後譜)』에 그 악보가 전하고 있다. 동동은 정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대악후보』에

전하는 말에 의하며, 동동과 정읍의 여음이 같으며, 두 악곡 모두 계면조 음계에 든다. 정읍과 동동의 음악적 비교를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 『대악후보』에 나타난 동동과 정읍의 악곡비교

곡명	동동	정읍
악주형태	관악합주	관악합주
악기편성	향피리, 대금, 소금, 해금, 아쟁, 장구, 좌고(삼현육각편성)	향피리, 대금, 소금, 해금, 아쟁, 장구, 좌고(삼현육각편성)
장단	고고요편쌍(10장단)	불규칙
조	세가락 임중궁 계면조	빗가락 남려궁 계면조
곡의 용도	아박정재	무고정재, 임금의 거동, 처용무반주
형식	연음형식, 만기 · 중기 · 급기	연음형식, 만기 · 중기 · 급기

IV. 마무리

지금까지 『고려사』를 비롯하여 10여 종의 동동 관련 문헌기록을 통하여 한국음악 과 관련한 동동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동(動動)은 동동사의 후렴에 나오는 「아으 동동다리」에서 따온 이름으로, 학계에서는 ‘동동(動動)과 동동(齧齧)의 음이 같다’고 하여 북소리를 의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동동(動動)은 북소리를 의성한 것이 아니라, 다리동작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말로 해석하였다.

둘째, 동동의 유래와 전래는 기존의 고려속요란 틀을 벗어나 마한 지역에서 유행하던 가무백희의 일종으로 남방 해양문화권에서 연행되는 다리 놀이에 연원을 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동동은 고려시대 왜구의 침입을 합포만호 유탁이 물리치자 이것을 송축하여 고려 악부로 유입되어 고려 속악에 편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는 시용향악정재로 편성되었다.

셋째, 동동사와 같은 달거리 형식의 노랫말은 한국음악 중 민요와 잡가, 단가 등 성악곡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고려시대의 동동춤은 조선전기 아박무로 연행되었나, 조선 후기 순조(純祖) 무자(戊子, 1828) 진작의궤(進爵儀軌)에 의하면, 또 다른 변화양상을 지닌 아박무로 연행되었다. 오늘날에는 이것 또한 단절되고 없다. 또한 조선 후기의 아박무에는 조선전기 아박무에 불리던 동동사가 완전히 빠지고, 대신 7언 절구의 쇠구름 노래하는 등 많은 변화양상을 지닌다.

다섯째, 동동의 음악은 일단 『대악후보』에 악보가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동은 전통음악의 백미라고 불리는 정음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음은 무고정재의 반주음악이고, 동동은 아박정재의 반주음악이란 점에서 서로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1. 한국측 문헌

- 『高麗史』
- 『樂學軌範』
- 『大東野乘』
- 『慵齋叢話』
- 『中宗實錄』
- 『增補文獻備考』
- 『星湖僊說』

『於于野談』
『芝峰類說』
『嘉梧藁畧』
『海東竹枝』
純祖 戊子『進宴儀軌』
『全韻玉篇』
『大樂後譜』
『民族文化大百科事典』
『韓國歌唱大系』

2. 중국측 문헌

『中庸』
『詩經』
『禮記』
『隋書』
『後漢書』
『說文解字』
『玉篇』
『呂氏春秋』

〈Abstract〉

‘Dong-Dong’ in Korean classical music

Kim, Se-jong

This paper focused on ‘Dong-Dong’. ‘Dong-Dong’ is classified as ‘folk music entertainments’ in *Koryosa*(高麗史). Therefore I examined documentary records closely related with ‘Dong-Dong’, out of that I argued about the meaning, the origin and the flow into folk music of Koryo(高麗). Besides I looked around the song of ‘Dong-Dong’, the dance of ‘Dong-Dong’ and the instrumentation of ‘Dong-Dong’. In consequence of that I derived following conclusions.

① Up to now ‘Dong-Dong’ has recognized as an onomatopoeic word of the sound of a drum. But I defined it as an expression of the motions.

② ‘Dong-Dong’ can’t be restricted as a ‘folk music entertainments’ in Koryo. It was a composite art of songs and dances which was wide-spreaded in Mahan(馬韓) area. Henceforth it was incorporated into folk music of Koryo, and court music of Chosun(朝鮮).

③ The words of that song had influence on the various genres of music in after ages.

④ The dance of ‘Dong-Dong’ performed on A-Bak(牙拍) dances until the latter period of Chosun, but can’t be initiated any more.

⑤ The music of ‘Dong-Dong’ was recorded in *Daeakhoobo*(大樂後譜), furthermore it was correlated to ‘Jeong-Eup’, while the use of these two musics are different.

Key words : Dong-Dong, Koryo(高麗), folk music entertainments,
A-Bak(牙拍), Daeakhoobo(大樂後譜)